

대구대학교 혁신사업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사례 공유 1

2025년 1호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목차

성과사례



- 03. 2025학년도 제1학기 인성교양 교과 성과보고회
_ 교양교육센터 행정실
- 05. [권역연합 CTL 공동프로그램] Re: Store, 대학을 연결하다
_ 교육혁신원 교수학습개발센터
- 07. AI학사챗봇 도입 및 운영
_ 교육혁신원 교육혁신팀
- 09. [학업 증진 상담 프로그램] “같이” 실천하는 공부, “함께” 이루는 변화
_ 학생생활상담센터
- 11. 2025년 자유전공학부 전공진로 탐색 세미나 및 진로지도세미나 전공설명회
_ 자유전공학부

학생사례



- 13. 2025학년도 1학기 공통교양 「빅컨셉+」 연계프로그램 강의페어링 공모
_ 교양교육센터 행정실
- 14. 2024학년도 마음건강공모전 멘토링(멘티)부문
[두두멘토링, 내 대학생들의 전환점] _ 학생생활상담센터
- 16. [DU캠퍼스 Walking&Talking] 마음산책: ‘우리, 함께’ 걷는 치유의 길
_ 학생생활상담센터
- 19. 통합상담지원체계 네이밍 공모전 실시, DU-CareBridge로 새 출발!
_ 성과관리센터

주요행사 계획 또는 소식



- 20. DX/AI 시대 맞이 대학 IR 시스템 「아틀라스(ATLAS)」 구축 추진
_ 성과관리센터
- 21. 2025학년도 1학기 DU-CareBridge 워크숍 성료
_ 성과관리센터
- 22. [ResCo Care] 비호생활관 RC교육프로그램
_ 비호생활관 행정실



성과 사례

성과사례

2025학년도 제1학기 인성교양 교과 성과보고회

교양교육센터 행정실

추진 배경

- 인성교양 교과 「나의대학생활과진로」, 「DU사랑빛자유프로젝트」의 운영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우수 결과물을 시상함으로써 '행복한 인생 설계'와 '나눔·헌신 및 지역사회 기여 정신 고취'라는 교과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 공유의 기회를 제공
- 학생 참여형, 과정 중심형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교과 운영을 활성화 하고 추후 강의 개선에 활용하는 등, 교과 운영 질 제고를 통한 교과목 내실화를 실현 하고자 함

목적

2025-1학기 대학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나의대학생활과진로」 10년 후 나의 모습 소개 공모' 및 「DU사랑빛자유프로젝트」 우수 결과물 공모'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인성교양 교과의 성과를 강화하고 환류함으로써 교과 운영을 고도화하고자 함

성과보고회 세부 사항

- 일시 및 장소: 2025. 6. 26.(목) 14:00 ~ 16:00 / 성산홀 17층 스카이라운지
- 참석자: 총 51명(재학생 43명 및 교·직원 8명)
- 행사 일정

시간	소요 시간	행사내용	비고
13:50	10'	등록	-
14:00	10'	개회사	교양교육센터장 김*혜
14:10	30'	〈DU사랑빛자유프로젝트〉 성과 보고	자유전공학부 하*명 교수
14:40	30'	• 인성교양 교과 우수 결과물 발표 - 〈DU사랑빛자유프로젝트〉 우수 결과물 2개팀 발표	사회복지학과 이*은 스마트원예학과 이*원, 장*리
15:10	30'	• 인성교양 교과 공모전 수상자 시상 - 〈DU사랑빛자유프로젝트〉 우수 결과물	교양교육센터장 김*혜
15:40	20'	총평(종합평가)	교양교육센터장 김*혜
16:00	-	폐회	-



사진 자료



발표사진



시상사진



단체사진

운영 결과

- 「DU사랑빛자유프로젝트」 교과 운영 성과 공유
 - 교과 운영 성과 보고: 하*명 교수(자유전공학부)
 - 우수사례 발표
 - 〈최우수상〉 행복을 전하는 키키! (행복배달부 키키 팀, 사회복지학과 이*은)
 - 〈우수상〉 농업 인식 개선 프로젝트 (새싹 팀, 스마트원예학과 이*원, 장*리)
 - 「DU사랑빛자유프로젝트」 우수 학생 시상
 - 최우수상 1팀 : 안*원 외 4명(총장상 및 부상)
 - 우수상 4팀 : 김*은 외 15명(총장상 및 부상)
 - 장려상 12팀 : 성*준 외 52명(총장상 및 부상)
 - 참가상 20팀 : 나*연 외 92명(센터장상 및 부상)
- * 시상팀 중 참석자들에 대한 시상식 진행, 이 외에는 개별 안내를 통한 상장 및 부상 전달



[권역연합 CTL 공동프로그램] Re: Store, 대학을 연결하다

- “학생 리더십과 학습동기 향상을 통한 자기성장 공동체 구축”

교육혁신원 교수학습개발센터

배경

- 대학 간 협력의 필요성
 - 최근 대학 사회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동기 저하와 리더십 발휘 기회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지역 대학 학생들은 한정된 교류 기회로 인해 자기성찰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학습 경험에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음
- 학생 문화와 학습 전략의 변화
 - 일방향적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성찰과 성장 경험을 제공하기 어려웠음. 이에 따라, 협력적 문제해결 기반 학습(PBL)과 공동체 참여를 강조하는 학습 전략이 부상하고 있으며, 학생 주도적 아이디어 교류와 협업 경험이 중요해지고 있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권역별 CTL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대학 간 공동 학습문화 형성과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음
- Co-PBL@경주: Re: Store의 추진 배경
 - 권역별 4개 대학(건양대, 대구대, 제주대, 한국해양대)은 CTL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리더십과 학습동기를 촉진하고 자기 성장 및 성찰 기회를 마련하고자 공동으로 본 프로그램을 기획함
 - 특히, 4개 대학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 필드트립 중심의 모둠 활동을 수행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교류를 통해 창의적 산출물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 주도적, 참여 기반의 새로운 학습문화 모델을 구현하고자 함



성과사례 추진사업

[권역연합 CTL 공동프로그램]

- 항리단길 필드 트립(팀 기반 현장 탐방)
 - 로컬 매장 20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오프라인 경험을 직접 관찰하며, 디지털 시대에도 지속되는 고객 경험 요소를 탐색함
 - 학생들은 3~5곳의 공간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고객 행동, 감정, 공간 요소, 브랜드 태도 등을 기록하고 분석함
 - 팀별 역할 분담(기록자·질문자·사진 담당 등)을 통해 협업 능력과 문제해결력을 강화하고, 관찰 결과를 정리하여 오프라인 공간의 가치를 재발견함.
- 인사이트 토크 및 HMW 문제정의(팀 기반 아이디어 도출)
 - 전일의 필드 트립 경험을 토대로 팀별 인사이트와 최고 경험을 공유함
 - “어떻게 하면 ○○ 공간에서 △△ 경험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HMW(How Might We) 질문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정의함
 - 각 팀은 새로운 경험을 디자인해보고 싶은 상점 또는 거리·공간을 선정하고, 문제정의 과정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기반을 마련함
- 문제정의 후 디자인 구상 및 프로토타입 제작
 - 팀별 HMW 문제정의를 바탕으로 실제 매장 개선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디자인 콘셉트로 발전시킴.
 - 학생들은 사용자 경험과 고객 여정지도를 고려하여 매장 구조, 공간 배치, 감각적 요소(시각·청각·체험요소) 등을 반영한 시안을 구상함
 - 이후 팀별 아이디어를 시각화하여 프로토타입(Prototype) 형태로 제작하고, 발표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함.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 수준을 넘어, 실질적 실행 가능성을 갖춘 결과물을 창출함



- 프로토타입 제안 및 성과 확산
 - 완성된 디자인 및 프로토타입을 실제 황리단길 매장에 제안하고, 현장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임
 - 매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통해 일부 아이디어가 매장 운영 개선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를 통해 본 프로그램은 단순 체험 수준을 넘어 지역 상권과 대학을 연결하는 산학협력적 성과를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검증·활용되는 과정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리더십·학습동기·자기성찰 능력 강화라는 교육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필드 트립, 아이디어 발산, 시상식 사진



행사 단체 사진

기대효과

- 대학 간, 학생 간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미래 안목을 키우는 기회 마련
- 학생의 학습 및 진로에 대한 목표 설정과 실천 능력 배양
-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통한 리더십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
- 학업능력 신장 도모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함양



AI 학사 챗봇 도입 및 운영

- 생성형 AI 챗봇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학사 지원 강화

교육혁신원 교육혁신팀

배경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중인 대학 사회에서 AI 학사 챗봇 도입을 통한 학생·교직원의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교육 혁신 구축
- 재학생에 국한되지 않고 예비 신입생, 외국인, 평생학습자 및 외부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대학의 개방성 확장
- 학사일정, 규정, 자주 묻는 질문(FAQ) 등 단순 반복 응답을 자동화함으로써 교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인력 운영 최적화
- 질문들을 데이터화하고 분석함으로써 제도나 절차에 혼선이 많은 구간을 파악하는 등 개선점 발굴 및 학생·교직원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추진 일정 및 주요 성과

• 추진 일정

기간	내용	비고
2025. 6.	업체선정, 시스템 준비	-
2025. 7. ~ 9.	시스템 적용	메인홈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 입학처
2025. 9.	대학전체 오픈	-
2026. 2.	효과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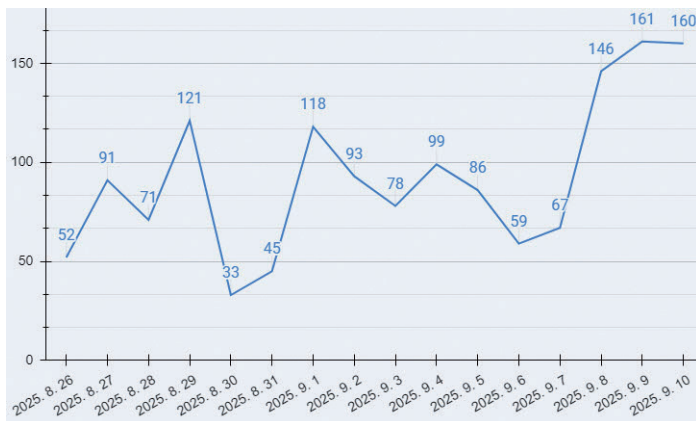
※ 운영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성과

- 재학생과 외부인들의 주된 문의를 데이터화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개선점을 파악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
- 대학 내 장애인과 외국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챗봇을 통해 학사, 교과, 비교과 등의 정보를 24 시간 상시 제공함으로써 정보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성 확대에 기여
- 단편적인 질문이 아닌, 규정, 수강, 기숙사 등 복합적인 질문에 대하여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챗봇을 통해 한 번에 정보를 제공
- AI 학사 챗봇 시범 운영부터 현재까지 챗봇을 사용하는 이용자 수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반복적인 질문들(FAQ)을 AI 학사 챗봇이 대신 대답함으로써, 교내 직원 업무 효율성에 기여
- 수시모집 기간 이전에 챗봇을 도입함으로써, 예비 신입생들의 입학과 관련된 문의에 대하여 최신화 정보를 24시간 상시 제공하는 등 신입생 수시모집에 기여
- 예비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수업, 행사 등 학사 관련 문의에 대하여 상시로 정보 제공하는 등 재학생 문의에 대한 만족도에 기여
- AI 챗봇이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제공할 시, 관리자가 직접 개입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



AI 학사 챗봇 질문자 수 그래프

기대효과

- 최신화된 정보를 24시간 상시 및 즉시 제공함으로써 질의응답 대기시간 최소화
- 반복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아닌, 규정에 없는 질문에만 답변하는 등 업무 효율성 제고
- 수강 신청 기간이나 졸업 직전 등 문의가 폭주하는 특정 시간대에 업무가 쏠리는 현상을 해결하는 등 비상시 빠른 대응 시스템 확보
- 주요 상담 내용 및 질의 유형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개선점을 발굴하고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는 등 학생·교직원과의 소통 강화
- 외국인 유학생 및 다양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오픈 캠퍼스 이미지 구축
- AI 학사 행정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혁신 선도 대학 이미지 확립 및 경쟁력 향상

지금 홈페이지에는 운행기간이 2025.9.1(월)~12.12(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2025년 2학기 운행 기간만 표시된 건가요? 1학기에도 운영이 되나요?

AI 대구대학교 오전 9:20

네, 맞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표시된 **2025.9.1(월)~12.12(금)**은 2025년 2학기 통학버스 운행기간입니다 ❶ .

학기별 통학버스 운행 현황

2025년 1학기 (이미 운행 완료)

- 운행기간: 2025.3.4(화) ~ 6.16(월) ❷
- 토/일, 공휴일 제외하고 정상 운행되었습니다

2025년 2학기 (현재 운행 중)

- 운행기간: 2025.9.1(월) ~ 12.12(금) ❶
- 토/일, 공휴일 제외하고 현재 운행 중입니다

통학버스 운행 특징

- 매 학기마다 운행: 1학기 및 2학기 모두 통학버스가 운행됩니다
- 노선 변경: 통학버스 노선은 매 학기 변경되므로 ❶ ,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새로운 노선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방학 중 미운행: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에는 통학버스가 운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1학기에도 통학버스는 운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운행기간과 노선은 학기 시작 전에 별도로 공지될 것입니다.

❶ [학생통학버스] 2025-2학기 학생통학버스(시외지역 포함) 안내
<https://www.daegu.ac.kr/article/DG159/detail/651294>

☞ 데이터 소스 관리

❷ [학생통학버스] 2025-1학기 학생통학버스 안내
<https://www.daegu.ac.kr/article/DG159/detail/643819>

☞ 데이터 소스 관리

국외 장기 외국어연수 프로그램 이거는 또 언제 할 거 같아?

AI 대구대학교 오후 12:05 읽음

2025학년도 국외 장기 외국어연수 프로그램은 이미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❶ . 현재 날짜(2025년 9월 9일) 기준으로 보면:

2025학년도 프로그램 현황:

- 모집: 2025년 3월 31일 ~ 4월 17일 (완료)
- 사전교육: 2025년 5월 7일 ~ 5월 29일 (완료)
- 학생 파견: 2025학년도 제2학기 (현재 진행 중) ❶

다음 프로그램 예상 일정:

2026학년도 국외 장기 외국어연수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매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므로, 2026년 3월 말경에 모집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2026학년도 일정:

- 모집 기간: 2026년 3월 말 ~ 4월 중순
- 사전교육: 2026년 5월
- 파견 시기: 2026학년도 제2학기 (2026년 8월~12월)

정확한 일정은 국제처에서 공고할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국제처 국제팀 (053-850-5684)**으로 문의하시거나 대학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❷ .

❶ [대학혁신]2025학년도 국외 장기 외국어연수 프로그램 모집 공고.pdf
신청자 접수 안내 사전교육 파견 준비 2025.3.31(월) ▶ 2025.5.7(수) ~ 5.30.(목) ▶ ~ 4.17.(목) 17시 2025.6. ~ 7. 파견대학 수학 학점

☞ 데이터 소스 관리

❷ 2025학년도 국외 장기 외국어연수 프로그램 모집 안내
<https://www.daegu.ac.kr/article/DG160/detail/644525>

☞ 데이터 소스 관리

AI 학사 챗봇 상담 내용



[학업 증진 상담 프로그램] “같이” 실천하는 공부, “함께” 이루는 변화

학생생활상담센터

배경

-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미흡한 학업관리(출석, 과제 등)로 인해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을 위해 학업 동기와 학업 수행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학업 적응의 어려움은 열등감과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슷한 고민을 겪는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며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 제공

성과사례 추진사업[학업 증진 상담 프로그램]

- 스윗듀(Study With DU)
 - 혼자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그룹 스터디 프로그램 운영중(2025.3.~)
 - 10명씩 구성된 소모임 단위로 운영되며, 매주 스스로 학업 목표를 설정하고 ‘열품타’라는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부 인증 진행
 - 3번의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소모임 구성원 간 교류를 촉진하고, 개인별 학습 방법, 학업 스트레스 해소 전략 등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 참여자의 성장 변화는 표 1, 성적 변화는 표 2에 제시



학습전략검사 실시 및 해석



그룹 스터디



표 1. 2024-2학기 스윗듀(Study With DU) 참여자 성장 변화 비교 (N=28)

변인	프로그램 참여 전	프로그램 참여 후	t
	M(SD)	M(SD)	
학업적 자기효능감	3.73(.66)	4.09(.54)	-2.132*
학업지연행동	3.06(1.16)	2.15(1.00)	3.243**

*p<.05, **p<.01

- 본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학업 자기효능감 향상 및 과제 미루기 등 지연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와 학업지연행동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사후를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 전과 비교하여 참여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과제 미루기 등의 지연행동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스윗듀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지연행동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2025-1학기 스윗듀(Study With DU) 참여자 성적 변화 비교

학생 구분	프로그램 참여 전 성적	프로그램 참여 후 성적	인터뷰 요지
일반사회교육과 A학생	3.33	4.44	“열풍타를 들어가면 다른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 보여서 다들 미리 공부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매주 목표를 적어야 되니까 남들보다 과제도 빨리 완성하고 그만큼 검토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과제 점수도 상승했어요.”
유아교육과 B학생	4.09	4.16	“성적 향상에 스윗듀 요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열풍타를 보면 공부 시간 엄청 많이 찍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해야지 하면서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공부 시간이 훨씬 늘었어요.”
경영학과 C학생	A	A+	“제가 1학년이라 그 전에 비교할 성적이 없지만 고등학교도 경영학과여서 그때랑 비교하면 많이 올랐죠. 공부욕도 생겼고 재밌기도 했어요. 저 성적장학금도 받았어요.”

- 본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학업 성과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A학생의 경우 성적이 3.33에서 4.44로 1.11점 상승하였고, B학생 역시 소폭의 성적 상승(4.09 → 4.16)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단순한 성적 상승을 넘어 공부 시간 증가, 자기주도 학습 습관 형성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열풍타’ 기능을 통해 타인의 학습 시간을 확인하며 자연스럽게 공부 자극을 받았고, 매주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학습 계획성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이 단순한 학업 지원을 넘어, 개개인의 동기 부여와 성취 경험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기대효과

-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집단원과 함께 공부 인증하며 상호 교류를 형성하고 성취감을 높여 지속적인 학업 수행 개선
- 매주 학생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밀착형 개입을 통해 학업 수행력 향상 및 학업 적응의 어려움 개선



2025년 자유전공학부 전공진로 탐색 세미나 및 진로지도세미나 전공설명회

자유전공학부

배경

- 전공 정보 분석을 통한 진로 방향 설정
 - 다양한 학과의 전공 설명을 듣고 학과 간 차이와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과 관심사를 파악
 - 교수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전공 선택에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얻음
- 전공 기반 진로 탐색의 필요성과 방향
 - 폭넓은 학습경험과 진로 탐색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및 진로 결정 능력 강화

행사 내용

- 전공진로탐색세미나(2025. 5. 2. ~ 5. 4.)
 - 자유전공학부 재학생 총123명 참여
 - 대학에서의 공부법 특강: 박영식 교수
 - MBTI 검사 및 MBTI에 맞는 직업찾기: 박영식 교수
 - 대학에서의 시간관리-사례 발표: 1학년 학생
 - 先輩들이 소개하는 나의 학과: 경제금융통상학과, 재활건강증진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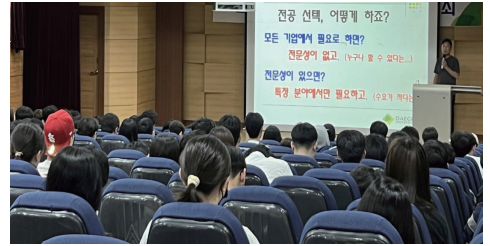
MBTI에 맞는 직업찾기



선배들이 소개하는 나의 학과



- 진로지도세미나 - 전공설명회(2025.5.14)
 - 자유전공학부 재학생 총254명 참여
 - 전공설명회 홍보 및 참가 희망학과 신청접수(2025. 4. 12.~ 4. 25.)
 - 에너지배터리학과, 아동복지학과, 회계학과, 동물자원학과, 식품가공외식학과, 조경자원디자인과 총6개 학과 전공설명회 행사 진행(2025.5.14.)



운영결과 및 기대효과

• 운영결과

학과 소개

항 목	전공설명회	전공진로탐색세미나
일시	2025년 5월 14일	2025년 5월 2일 ~ 4일 (2박 3일)
장소	인문1관 강당	경남 부곡 일성콘도&리조트
참여 학과 및 내용	에너지배터리학과, 아동복지학과, 회계학과, 동물자원학과, 식품가공외식학과, 조경정원디자인학과(총 6개 학과)	자신의 적성과 희망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별 교육과정, 진로 분야, 자격증 정보 소개 • 교수 및 선배 강연 • 시각 자료 활용 및 맞춤형 Q&A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TI 검사 • 학과별 특강 • 선배 멘토링 • 진로 탐색 활동 등
참여 학생 수	254명 [전년도 대비(155명) 64% 증가]	123명(목표 대비 144.7% 달성)
만족도	4.69점(5점 만점)	4.53점(5점 만점)
성과 및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 이해도 및 만족도 향상 • 정보 전달 효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결정에 실질적 도움 • 학과 간 네트워킹 및 공동체 의식 강화

• 기대효과

- 전공 이해도 및 선택역량 강화
 - ▶ 학생들이 다양한 학과의 특성과 진로 정보를 직접 비교·탐색함으로써 자기주도적 선택 능력이 향상됨
 - ▶ 학과별 교육과정 이해와 진로 방향 설정이 구체화되어 학업 몰입도가 증대됨
- 진로 탐색 및 설계 역량 강화
 - ▶ MBTI 검사, 특강, 멘토링 등을 통해 자신의 성격 및 적성에 맞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진로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목표의식이 강화되어 학습 동기 향상에 기여함
- 학부 내 소속감 및 상호 교류 활성화
 - ▶ 전공설명회와 세미나를 통해 학부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가 확대되어 공동체적 학습 문화가 형성됨
 - ▶ 교수·선배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학부 내 유대감 및 소속감 강화



학생 사례

2025학년도 1학기 공통교양 「빅컨셉+」 연계프로그램 강의페어링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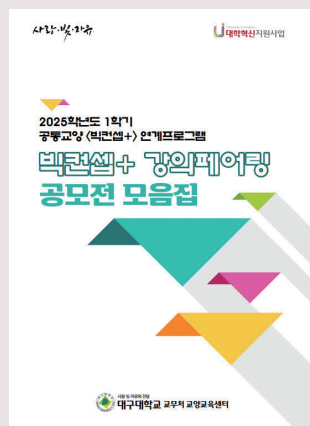
교양교육센터 행정실

☰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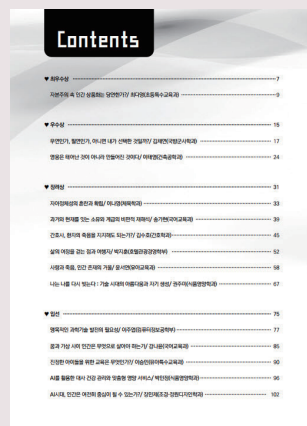
- 인문, 사회, 자연을 아우르는 문제 중심 수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을 수 있는 역량 함양이 목표인 <빅컨셉+> 교과목과 연계한 학생 참여 프로그램(빅컨셉+ 강의페어링 공모전)을 실시함으로써 교과목의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 추구
- <강의페어링>의 학생 주도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및 융복합 교육 활성화

☰ 공모전 세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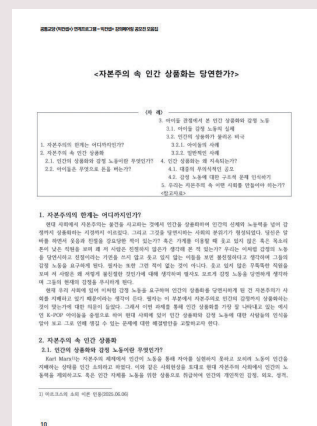
세세부 프로그램	부서 프로그램	주요 내용					
기초교육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공통교양 빅컨셉+ 교과 연계 프로그램 강의페어링 공모	• 추진일정					
		- 2025. 6. : 2025-1학기 공통교양 빅컨셉+ 연계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안내					
		- 2025. 6. : 1차 심사통과자 신청 접수					
		- 2025. 7. : 2차 심사 및 선정					
		- 2025. 7. :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 2025. 7. : 결과 발표 및 총장상, 시상금 지급					
		• 추진내용					
		- 각 강좌별 담당교원이 추천한 우수 결과물을 1차 심사 통과로 함					
		- 1차 심사 통과하여 추천된 작품을 교양교육센터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상위 22개작 최종 선정 및 시상					
		참여대상	운영기간	시상인원		참여인원	
				2024 2학기	2025 1학기	2024 2학기	2025 1학기
		1학년	25년 06월 ~ 07월	21	22	61	52



공모전 모음집 표지



공모전 모음집 목차



최우수작(2025-1)



2024학년도 마음건강공모전 멘토링부문 [두두멘토링, 내 대학생활의 전환점]

재활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24학번 박*연

학생생활상담센터

배경

‘DODU 멘토링이 내 대학 생활을 180도 바꿔놓았다’ 라고 표현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멘토링은 나에게 정말 의미있는 활동이었다. 나는 다른 친구들과 조금 빨리 대학교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주변에 대학생활의 고민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다. 보통 친한 선배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듣기도 하지만 그럴 선배도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채 대학 생활을 시작하였기에, 대학에 입학한다는 설렘보다는 대학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욱 컸던 것 같다. 그래서, 입학초기 갈피를 잡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와중 DODU멘토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나는 멘토링을 신청하게 되었다. 처음 멘토링을 신청했을 때에는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멘토가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설레고, 내 대학 생활에 길라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뻐졌다. 멘토의 학과와 이름 말고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나의 멘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들뜨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다. 멘토는 한 학기 동안 나와 일주일에 한번 주기적으로 만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두루두루 이야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의 얘기를 공감해주기도 하고 어떠한 문제상황이 있으면 해결책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냥 내 얘기를 묵묵하게 들어준 적도 있었다. 어떨 때는 같이 만나 서로의 스터디메이트가 되어 공부만 하기도 하였다. 멘토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 그냥 멘토와 있는 그 시간이 좋았고, 같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 마음의 안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

멘토와는 학업적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아 남들보다 기본 지식이 조금 모자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해야 하는지를 좀 많이 물어본 것 같다. 그러면 멘토는 같은 학과는 아니지만 배우는 내용이 비슷했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 과정에서 나만의 생각을 더해 공부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과목들에 대한 후기를 알려주며 공통교양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어떻게 해야 좋고, 이 교양 교수님은 뭐가 좋거나 뭐가 조금 아쉽고 등 정말 세세한 특징까지도 다 알려주어 시간표를 짤 때 도움이 많이 되었다.

멘토는 학업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학교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특히 학창 시절에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던 나로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조언이 필요했던 것 같고, 실제로 그 조언을 토대로 학교 생활을 하다보니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완전히 어려움을 극복하진 못하였지만 그래도 더이상 예전만큼의 불편함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내에서 진행되는 비교과프로그램, 대외활동이나 자격증 관련해서도 많은 팁을 주셨다. 이런 조언은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니라면 해줄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멘토에게 정말 고마웠다.



나는 두두 멘토링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다. 일단 학교생활에 두려움을 느끼던 나지만 이제는 학교생활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 같이 이야기를 할 친구들도 생겼으며, 학업적인 면에서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 운이 좋게 성적장학금까지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학기 초반에 진행된 학업적응검사에서 학습능력부족이 9점이 났던 것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성장이었다. 스스로가 굉장히 부끄럽고, 성장했다는 것을 스스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변화였다. 스스로만 느낀게 아니라, 동네 친구들을 만나면 정말 성숙해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을 정도로 몰라보게 변화하였다. 멘토링을 하면서 멘토에게 배웠던 내용은 1학기의 내가 대학생활의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렇기에 지금의 내가 어엿한 한 명의 대학생으로서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다. 멘토링이 없었다면 아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학교를 그만 뒀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준 멘토를 정말 존경하고 있다. 지금도 마음 속으로는 잊을 수 없는 선배이기도 하다. 나도 대학생활 초반에는 이런 도움이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 이 경험을 살려 다음에는 직접 멘토가 되어 나 같이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누군가의 대학생활에 길라잡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두두 멘토링은 내 대학생활에서 이제는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자산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 두두 멘토링을 통해 나 말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학교생활에 도움을 받고 잘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DU캠퍼스 Walking&Talking] 마음산책: ‘우리, 함께’ 걷는 치유의 길

학생생활상담센터

배경

- 우리 대학의 우수한 캠퍼스 환경에서 재학생들의 마음(心)에 쉼을 누리며 건강한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필요
- 대학생활에 지친 대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캠퍼스를 활용하여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타인과 함께 어우러져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프로그램 내용[DU캠퍼스 Walking&Talking]

- DU캠퍼스 Walking&Talking
 - 재학생들의 건강한 대학 캠퍼스 문화를 형성하고, 지친 마음(心)에 쉼을 주는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중(2025. 3.~)
 - 캠퍼스의 자연을 탐색하며 경험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 넓은 캠퍼스를 걸으며 대학생활 중 지치고 힘든 마음을 단원들과 나누고 서로 지지자가 되어주며 심리적 어려움 공유
 - 명상, 스트레칭, 산책, 자연물 체험 등 리프레쉬(refresh) 활동 진행



집단상담 활동사진



캠퍼스 자연물 체험 활동사진



기대효과

- 심리적 어려움을 공유하여 심리적 위기 예방 및 조기개입
- 자연친화적 캠퍼스를 활용한 활동성 증진 및 스트레스 대처기술 향상
- 집단 활동을 통한 대인관계 능력 향상 및 마음건강 증진
- 대면 프로그램을 통한 재학생 활력 증진 및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



Walking&Talking 참여 학생 사례: [마음건강공모전] ‘쉽’의 소중함

재활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 24학번 정*경

●
●

설레는 새 학기의 시작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고민하다 학교 캠퍼스도 돌아보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자 walking & talking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신청했다. 프로그램은 5회기로 구성되어 캠퍼스를 산책하고, 돛자리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도 듣고, 상담도 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무래도 야외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다행히도 상담을 진행하는 날에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아서 매주 소풍 가는 기분이었다. 첫 날 같이 상담하는 분들을 만나 상담실에 둘러앉아 각자 간단한 소개를 나누고 리더님이 빈 명찰을 나눠주었다. 내가 붙리고 싶은 애칭이 있다면 명찰에 작성해 보라 하셔서 나는 학창 시절 별명이었던 ‘보보’로 작성하였다. 내 이름에 ‘보’가 들어가서 친구들이 “보보야~”라고 불러주었는데 아직도 그 별명을 들으면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다. 그래서 다들 각자의 애칭을 적고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그 애칭으로만 서로를 불렀다. 이 프로그램의 활동은 학생생활상담센터의 앞에서 모여 리더님이 선택해 주는 학교 내 캠퍼스 장소로 간다.

서문 잔디밭, 비호 동산, 성산홀 광장, 빛 광장 등 우리 학교 구석구석에서 자리 잡고 돛자리 펴고 둘러앉아 한 주 동안 서로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리더님이 준비해 온 간식을 나눠 먹는다. 그리고 뽑기를 해서 둘씩 이어지는 단어를 찾아 짝궁이 된다. 짝궁이 된 사람끼리는 10~20분 동안 함께 주변을 산책하며 학교생활의 고민이나 요즘 드는 생각들을 얘기한다.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학교에 궁금증이 엄청 많았는데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학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었던 기간이기도 했다.

그렇게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주변 나뭇가지나 나뭇잎을 이용하여 그림그리기, 벚꽃 사진 찍기, 그림일기 쓰기 등 리더님이 준비해 온 활동을 하는데 유치해 보일 수도 있다. 근데 막상 해보면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 너무 행복했다. 그림일기는 10년 전 초등학교 방학 숙제로 낸 것 같은데 성인이 되어 그리려고 하니 잘 안 그려졌지만 내 맘속에 잠들어있던 어린시절의 내가 일어나 그림을 그려주었다.

해당 집단상담 프로그램에는 어려운 활동들이 없다.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림 그리고, 풍경 구경하고, 자연을 느낀다. 이 활동들의 취지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삶에 ‘쉽’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른 채 바쁘게 살아간다. 늘 보는 학교 앞 나무의 변화도 눈치 못 채고 나의 할 일을 하기 바쁘다. 그런 삶 속에서 쉬는 법을 알려주는 활동들이었던 것 같다.

●
●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대학교 들어와서 첫 중간고사를 맞이하고 긴장이 엄청나게 되었던 주간이 있었다. 전날도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늦게 잠들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 활동을 마무리하는 하고 싶어 억지로 나갔다. 그런데 웬걸, 나의 이런 마음가짐이 민망할 정도로 너무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왔었다.

그날은 만나서 성산홀 광장을 갔었는데 햇빛이 너무 따사롭고, 오전 시간대라 학생들도 거의 없어 이 큰 광장이 우리 것 같았다. 그리고 리더님이 “요즘 시험 기간이라 힘드시죠~” 하시며 지금이라도 잠시 쉬라고 노래 한 곡을 틀어주었다. 그 곡이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이었다. 한 주 동안 머릿속이 정말 쉴 틈이 없었다. 온갖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머릿속이 눈감고 노래를 들으며 따사로운 햇볕을 느끼고, 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다 보니 머리가 텅 비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가벼웠다. ‘아 이게 쉽구나.’ 싶었다.

우리 현대사회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은 알려주지만, ‘쉬’는 알려주지 않는다. 사실상 현대인들에게 ‘쉬’는 터부시여긴다. ‘잠은 죽어서 자기’라며 다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만큼 쉴 시간을 자신에게 잘 주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잘 쉬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이번 Walking & talking을 하며 느낀 점은 ‘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아무리 바빠도 나를 위한 쉬의 시간을 주는 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점은 우리 학교 정말 정말 넓고, 나무가 많아서 계절의 변화를 잘 느낄 수 있다. 봄에는 벚꽃나무가 줄지어서 피고, 여름에는 초록 잎나무들이 무성하다. 가을에는 단풍나무가 이쁘게 색이 입혀진다. 겨울은 눈이 안 와서 아쉽지만, 다시 봄을 준비하는 나무들을 보며 설렌다.

내가 좋아하는 계절을 골라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만족도가 더욱 올라갈 듯하다. 봄에 벚꽃을 마음껏 느끼고 싶다면 1학기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단풍놀이를 하고 싶다면 2학기 가을이 올 때 신청하면 학교의 애정도, 나의 삶의 만족도 올라갈 것이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 다시 재참여하고 싶을 정도이다. ‘쉬’를 배우고 싶은 분들, 평소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분들이나 또는 쉬고 싶은 사람들은 필히 신청하여 다들 삶의 평화와 안정이 왔으면 한다. 나는 쉬를 배웠으니, 다시 정진해 보아야겠다.





통합상담지원체계 네이밍 공모전 실시, DU-CareBridge로 새 출발!

성과관리센터

All in Care 네이밍 공모전

All in Care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접수기간 2025년 4월 1일 ~ 4월 10일

모집대상
대구대학교 구성원 누구나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 50만원
- 우수상: 1명 - 30만원
- 장려상: 3명 - 10만원

참모주제
대구대학교 학생들이 원활한 대학 생활을 위한 전문기관의 상담 운영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다양한 학생 맞춤형 상담 케어 서비스를 할증하는 창의적 이름

접수방법
QR코드를 스캔하고 쉽고 빠르게 참여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학사공지 및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성과관리센터 053) 850-5507

기획처 성과관리센터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통합상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명칭 'All in Care'가 교내 동일 명칭 시스템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다양한 교내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상담지원체계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2025년 4월 1일(화)부터 10일(목)까지 「All in Care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대구대학교 재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여 총 144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5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전자공학전공 정○현 학생의 「Care Bridge」가 최우수상작으로 뽑혔습니다. 'Care Bridge'는 마음과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라는 의미로, 진로·학사·취업·심리·장학 등 다양한 상담 분야를 하나의 교차점에서 연결하는 통합상담지원체계의 특성을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명칭은 'DU-CareBridge'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대구대학교 재학생 통합상담지원체계를 대표하는 정식 명칭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명칭과의 혼동을 줄이고 상담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담은 'DU-CareBridge'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든든한 상담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한 DU-CareBridge, 앞으로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학생상담 DU-CareBridge

대학 생활의 다리가 되어드립니다.

학생생활상담센터
심리상담 (개인·집단상담, 학교생활문제상담 등)
053) 850.5237/6886

대학입학지원센터
진로·취업상담 053) 850.6780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053) 850.4911

아카데미관청센터
학사상담 053) 850.5050/5854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코칭 053) 850.5436~7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상담 053) 850.5202~5

국제처
외국인 학업상담 053) 850.5698
외국인 비자상담 053) 850.5697
외국인 언어별상담 053) 850.6206~7

인원센터
인원관리 상담(성희롱·성폭력 등) 053) 850.5417

비호생물관 행정실
기숙사 생활상담 053) 850.5262

정신건강상담센터
정신건강 상담 053) 850.5955~6

학생상담 신청 방법

- 대구대학교 앱 > 스캔트 서비스 > 학생상담
-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학생' 또는 'DU SERVICE' > 학생상담
- 학생생활정보시스템 > 학적·교양 > 상담내역/신청 > 상담신청

학생상담 서비스

대구대학교 기획처 성과관리센터



주요행사 계획 또는 소식

DX/AI 시대 맞이 대학 IR 시스템 「아틀라스(ATLAS)」 구축 추진

성과관리센터

기획처 성과관리센터는 디지털 대전환(DX)·AI 융합 시대를 맞아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대내외 요구를 인식하고, (가칭) 「아틀라스(ATLAS)」 (Advanced & Trailblazing Live Analytics System)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교직원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웨어하우스(DW)를 마련하고, 성과관리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 및 고도화하여 대학 전반의 업무 효율과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및 모델링을 통해 교내에 산재한 DB 등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 ETL(수집·변환·적재)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제별 데이터마트(DM), 성과관리 포털 및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BI), 편리한 온라인 데이터 분석(OLAP) 등을 지원하여 교직원의 데이터 민주화를 이룩하고 대학의 데이터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과관리센터는 시스템 구축에 약 3개월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오픈 후 교직원 참여 및 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IT 비전문가도 코딩 없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노코드(No-code) 기반 시민 개발자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시스템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내 데이터 관리와 가치 극대화를 총괄하는 협의 조정 기구인 (가칭)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대학 전반의 데이터에 관한 정책·품질·보안·활용 기준 등의 심의와 데이터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을 진행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스템 오픈 및 테스트를 거쳐 안정화된 이후에는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다양한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반 AI 응용 혁신 서비스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오니 많은 기대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1학기 DU-CareBridge 워크숍 성료

성과관리센터

기획처 성과관리센터는 지난 5월 16일(금) 평생교육관 소극장에서 '2025학년도 All in Care(현: DU-CareBridge)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각 학과(부) 교원, 조교 및 교내 상담부서 관계자 약 70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마음보심리상담센터 김태희 대표가「소통으로 여는 학생 마음: 경청과 공감의 의사소통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학생 상담 과정에서 핵심 역량인 '경청과 공감'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재학생 만족도 향상과 중도탈락 예방에서 학과(부)와 상담부서 실무자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매년 3월 조교 및 상담부서의 담당자가 교체되는 상황을 고려해 학생 상담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적 성격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획처 성과관리센터는 앞으로도 학생 통합상담지원을 위한 환경을 꾸준히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생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조교 및 교내 상담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 열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ResCo Care] 비호생활관 RC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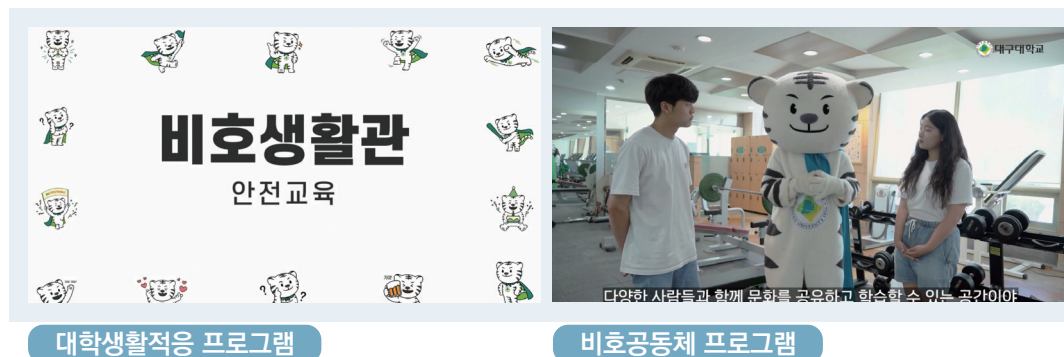
비호생활관 행정실

목적

-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숙사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 다양한 문화체험, 창의적 미래 인재성을 위한 RC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 대두
- 사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흥미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대학 생활의 원활한 적응과 기본 소양 교육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전인 교육 필요
- ‘봉사, 자율, 창의, 소통, 협업’의 대학 핵심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기숙사생 맞춤형 서비스 마련 요구

RC교육프로그램

- RC 비대면 프로그램
 - 비대면 사생 교육을 위한 사생 필수 비교과 프로그램
 - 인성 교육, 공동체 교육, 안전 교육을 통한 사생의 원활한 기숙사 생활 지원
 - 대학 생활 적응, 비호 공동체 프로그램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비호공동체 프로그램

- RC 비교과 프로그램
 - 다양한 분야의 자기 주도적 활동을 통한 인성 함양 및 개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 문화·예술, 인성·봉사, 운동·건강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 운영
 - RC 비교과 프로그램 누적 이수 시간에 따른 학점 인정 및 비교과 마일리지 연계



RC 비교과 프로그램 '바리스타'

RC 비교과 프로그램 '실용 생활도예'



- RC 우수작품 콘테스트
 - RC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사생의 제작 작품 중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
 - 내실 있는 양질의 수업 운영과 사생의 참여도 및 관심도 향상 유도
 - 시상식 후 우수작품 전시회 연계



RC 비교과 프로그램 '니팅룸' 우수작품



우수작품 콘테스트 전시회

- 2학기 진행 일정
 - 개설과정: 바리스타 과정 외 22개 프로그램(총 23개프로그램, 31개반 운영)
 - 신청기간: 2025. 09. 02.(화) ~ 09. 05.(금)
 - 교육기간: 2025. 09. 15.(월) ~ 11. 21.(금)
 - 교육장소: 향토생활관 강의실 외 해당 강의실

기대효과

- 도전적 경험을 통한 과제를 수행하고 문제 발생 시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 증대
-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향상 및 협업 능력 증진
- 우리 대학 기숙사만의 RC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및 정착